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시대 온라인상의 이주노동자 뉴스 프레임 분석*

조숙정 · 황미혜**
(동아대 · 부산외대)

1. 서론
2. 이론적 논의
 - 2.1. 디지털 노마드 개념 및 유발요인
 - 2.2.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
3. 자료와 연구방법
 - 3.1. 자료 수집
 - 3.2. 연구방법
4. 연구결과
 - 4.1. 키워드 트렌드 분석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따른 온라인상에서 보도된 뉴스 프레임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시기별로 파악하고, 향후 가칭 이민청 설립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3093301).

** 제1저자 : 조숙정, 교신저자 : 황미혜

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상의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 총 22,807건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 병행 시기, 고용허가제도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각각 3단계로 분류하여 이주노동자 관련 온라인상 뉴스 기사에 대해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관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뉴스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상황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주제어] 디지털 노마드 시대, 이주노동자,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코로나19 팬데믹, 혐오

1. 서론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는 추진 방안 및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둔화되었던 한국사회의 체류외국인¹⁾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4월 기준 체류외국인은 2,354,083명이며, 전월 대비 2,335,596명보다 0.8%(18,487명) 증가하였다. 합법적인 체류 외에 불법체류외국인은 동월 기준 417,852명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²⁾ 또한 전체 체류외국인 중 일부는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1) 체류외국인: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외국인(*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을 정의하고 있다(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요 용어 설명).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2023년 4월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 2023. 05.30., 검색.

노동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에 대한 용어로 국제협약인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라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³⁾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협약의 개념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는 주로 고용허가제도에 의해 유입되고 있는 구성원이다. 2023년 4월 기준 전체 체류외국인 중 396,175명이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자에 해당된다.⁴⁾ 최근 이주노동자의 단기순환도 변모되어 장기거주화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고용허가제도 재입국 특례제도,⁵⁾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등 시행과 관련성이 있다.

한편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일상에서 공유하게 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정보를 긍정적 및 부정적인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소수자 집단이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은 페이스북과 더불어 온라인 뉴스 기사 댓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기사화되었을 때 어떤 대상에 대한 혐오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외국인정책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할당제 시행, 2012년 조선족 오원춘과 박춘봉의 살인 사건 발생 등 국내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사회는 이주민 구성원에 대한 관용성의 약화를 가져왔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관련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서 한국 등 세계 154개국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 조사결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구조적 차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하였다(국제엠네스티, 2022).

이주노동자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고용허가제도에 의한 사업

3)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다.

4) 고용허가제도 대상: E-8(계절근로자) 12,185명, E-9(16개국 MOU 외국인근로자) 278,363명, H-2(재외동포 특례제도) 105,627명이 해당된다.

5) 고용허가제도 재입국 특례제도: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1번에 최대 4년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며, 재신청하면 다시 4년 10개월간 노동을 할 수 있다.

장 변경, 횡수 제한 완화 법령에 대한 제안 및 사업장 실태조사 분석(중소기업중앙회, 2019; Han, 2020; 노기호, 2021; 한준성, 2022)이 주를 이루었다. 이주노동자의 온라인상 뉴스 관련 연구로는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 범죄뉴스 추출 및 이주민 혐오성 댓글 추출 분석 연구가 대표적이다(조우연, 2019; 양혜승, 2022).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 관련 연구로는 이주민이 다른 구성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조사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이주민을 대하는 부정적 태도 표출의 온라인 단체 및 시민들 목소리가 온라인상 뉴스에 의해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김철효, 2019). 이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언론매체의 뉴스는 일반대중의 담론 관련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Birkland, 2005). 이주노동자와의 직접적인 교류 경험이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며, 이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여 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김동수 외, 2011; 심영섭, 2015). 이인희 외(2013)의 연구에서 미디어는 실제로 이주민을 사회적 약자의 개념으로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주민과의 관련된 뉴스는 주로 범법 행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와 같은 뉴스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박승조 외, 2016; 허찬행 외, 2016).

한편 한국개발연구원(2020) 정책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연령층은 40대 이하 20~30대 젊은층이 가장 많이 차지하며,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이종관, 2020).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사회 갈등과 불법체류로 인한 열악한 근무 및 생활환경 등은 폭력,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에서 이주노동자를 향한 혐오 및 차별 증지에 대한 이주단체의 집회가 개최되는 것은,⁶⁾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6) 연합뉴스 2021. 11.04 기사 내용 “이주노동자 향한 혐오, 차별 중단하라” <https://www.yna.co.kr/>, 2023. 04.21., 검색.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언급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합법체류이든 불법체류이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혐오, 차별 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 분석 결과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주노동자가 제도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시기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시기별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 키워드의 특징에서 부정적인 프레임 인식을 증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가칭 이민청 설립과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에 부합하기 위하여 탐색할 것이다. 나아가 점차 정주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의 방향성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디지털 노마드 개념 및 유발요인

프랑스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현대인의 특징은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⁷⁾ 고도로 발전된 기술의 변화는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디지털 신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의미보다 호모 디지사피엔스(Homo Digi-sapiens), 디지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용섭, 2005).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디지털 매체는 하이퍼텍스의 형태로 구성되며, 미디어 콘텐츠가 다양한 자료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링크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문자, 웹 서핑, 온라인상의 뉴스 댓글 등을 디지털 기기로 동시에 할 수 있으며,

7) 21세기를 '디지털 장비를 갖고 지구를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자크 아탈리, 이효숙 옮김, 2005).

디지털 공간에서 노마드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재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노마드는 가짜뉴스 양산과 특정한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디지털 노마드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신념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다(조민정, 2019).

윤인진 외(2019)는 세계적인 경제난을 겪으면서 온라인상 뉴스 기사 및 댓글의 혐오 표현은 신자유적인 일자리 경쟁,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다원적 무지와 고정관념으로 인한 갈등 발생, 범죄 등으로 다양한 가치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 뉴스는 즉각적으로 뉴스 기사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의견을 확인해준다는 것이다. 이전의 네트워크 사회 연구에서는 백인, 고학력자 등 기존 주체 세력이 주가 되었고, 이주자, 소수인종 등은 제외되었다. 반면 디지털 영역에서는 코호트(Cohort)를 기반으로 해도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소멸된 지 오래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 기기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삶의 흐름을 공유하는 다중적 존재를 의미한다. 또한 연결성과 이동성 측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별, 국적, 인종 등을 불문하고 공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의 2018년도 출입국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내외국인이 출·입국하였다.⁸⁾ 2023년은 현재의 추이대로 출입국이 지속된다면 점차 2018년도의 인구수로 회복할 전망이다. 디지털 노마드는 이민선진국형에 속하기는 하지만 개발도상국가(저개발국가)들의 송출 이주 또한 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 난민 등 다른 의미의 디지털 노마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마드는 목적국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마드의 속성은 이동(move)으로 이방인들과 다양한 상호협력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대와 혐오도 불가분의 관계로 조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세계의 약 180여 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8) 2018년도 총 출입국자는 88,908,42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이어 갔으며, 전년 대비 10.6%(8,500,718명) 증가하였다.

있으나 여전히 이방인과 낯선 것을 환대로 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외교부, 2023).⁹⁾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시에 난민 신청 폐지 청원과 관련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을 때 약 70여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참여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용환, 2018).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2018년과 2021년에 각각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도표에 의하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보다 2021년에 -0.54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21). 이는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온라인상의 반대 여론도 한 몫을 하였으며, 한국사회에서 최근 몇 년간 다문화 혐오가 사회문제의 일면을 장식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육주원 외, 2021). 혐오 표현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을 근거로 혐오감을 표현하는 언어(Lee, 2015)라고 일컬어진다.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여성, 종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혐오 표현의 피해자가 된다. 성희담론은 여성의 외적인 매력 강요 사회 분위기로서 여성들의 경험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형 수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비난이 결합한 것이다(Kim, 2015). 이러한 혐오 표현을 가장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상에서 통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특정 사안은 신속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는 빠르고 어떠한 경계도 필요없는 확장성과 복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Choi, Choi & Choi, 2008).

한편 유럽 등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심한 혼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005년 프랑스의 파리 방화 사건,¹⁰⁾ 2011년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청사 폭탄 테러 및 우퇴이아(노르웨이어 Utøya) 섬 일대 총기 난사 사건¹¹⁾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한국 또한 2012년 조

9) 외교부 2023년 5월 현재 수교국 현황(192개국) https://www.mofa.go.kr/www/wpage/m_4181/contents.do, 2023. 06 .12., 검색.

10) 2005년 10월, 방리유(banlieues)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 가정 청소년들이 주도한 소요가 발생했다.

11)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Anders Behring Breivik).[8] 1979년 2월 13일 오슬로

선죽에 의한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일탈과 범죄에 해당하는 경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구별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주민에 대한 관용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이주민과 관련된 사건들은 정보와 근거가 현실과 결합되었을 때 공명효과(Resonance effect)가 발생되어 제노포비아(Xenophobia)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다문화 반대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할 정도로 오프라인으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포의 확산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제노포비아 현상과도 개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혐오의 일환으로 아시아계 시민들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Hennebry and KC, 2020).

2.2.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

이처럼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미디어 역할은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각 국의 뉴스 기사를 언어 소통에 관계없이 접할 수 있는 시대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2023년 5월 6일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웃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온몸에 총기탄사를 당한 비극적 참사가 발생하였다. 한인 교포 일가족도 안타깝게 숨졌으며, 총격을 가한 범인이 강한 인종주의에 뿌리를 둔 신(新)나치즘을 추종했다는 정황이 나왔다.¹²⁾ 이러한 혐오와 증오범죄는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겹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상기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뉴스 프레임 분석 관련 연구에서 강진구 외(2019)는 2018년 제주도 예멘난민 사태는 다문화 인구변화에 대한

출생인 브레이비크는 범행 전 2083 A Europ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2083 유럽 독립 선언)이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브레이비크는 어린 청소년들을 포함여 사망 77명과 부상 31명으로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으며, 한국과 일본을 보수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한 이상적인 국가로 보고 유럽 역시 이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한다(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 2023.04.21., 검색.

12) 연합뉴스(2023.05.13.) 미텍사스 '총기참사' 한인가족 장례식 엄수...하늘도 울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3008000075> 2023.07.17., 검색.

대비가 미흡한 채 맞이하여 외국인 혐오에 대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네이버 뉴스 댓글을 분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2019)는 외국인은 한국사회의 범죄 발생 요인, 내국인 일자리 빼앗기, 시혜 대상 등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원춘 사건 등, 온라인 뉴스 댓글 분석 결과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증가하였고, 내국인들의 반감이 더해졌다고 강조하였다(박미화 외, 2017). 특히 이러한 반감은 온라인상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모욕과 관련한 연구의 예시 사례를 살펴보면 “흑인 두 명이 우리 기숙사에 있는데, 어휴 00 냄새가 아주 ㅋㅋㅋㅋㅋ”이라는 외국인 혐오 표현의 온라인 확산까지 더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배영주, 2020).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온라인상 뉴스를 부정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다문화정책반대, 다문화 반대 범국민 실천연대 등)¹³⁾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는 최근에는 활동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시위나 집회로도 이어지고 있다(주간조선, 2023). 황경아(2017)의 연구는 반다문화 정서와 외국인 혐오 현상에 대한 유발요인을 미디어 담론 분석을 통해 인지적 및 정서적 차원, 제도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을 주요 근거로 분석하였다. 현실적으로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간접적인 형태로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두고 늘 주목을 받는 구성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김

13) 온라인상 반 다문화 대표적인 활동 단체

다문화정책반대	다문화바로보기실천연대
	
<p>https://cafe.daum.net/dacultureNO</p>	<p>https://cafe.daum.net/antifworker</p>

동수 외, 2011).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적 보도와 폭언 등은 온라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인류애에 걸 맞는 평등, 존중, 공존의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 Levmore & Nussbaum (2010)의 연구에서 대상화는 인간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대상 또는 사물로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만큼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Tuchman(1978)은 뉴스는 거울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현실(Constructed reality)을 반영한다고 강조하였다. 프레임은 수용자가 현실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으로 스키마를 말한다(이희영, 2016).

언론은 여러 미디어 중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비출 수 있고, 많은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사회의 담론 형성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언론들은 객관성을 근거로 한 보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일부 보도들은 언론의 본분을 잊은 채, 때로 이념에 따라 사실의 보도를 망각할 때도 있다. 즉 갈등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 보수 대 진보라는 동전의 양면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사건이 언론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각과 관점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기사화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 프레임은 뉴스가 현실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동원되는 기재로서 뉴스프레임은 지배 이데올로기(Hegemonic ideology) 형성과 전파의 중심점이라고 주장하였다(김선남, 2002). 이처럼 재난이나 위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다수는 어떤 프레임으로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관련 책임을 어느 대상자에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Coombs, 2007). 오미애 외(2020)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언론 보도와 기사 댓글에 대해 코로나와 우한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초기에는 시계열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2월 18일 한국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전체 31번째 확진자), 소셜 미디어 버즈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 단순기능인력으로 진입하여 단기이주의 대상에서 정주화로 변모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자료와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뉴스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시기별 그 변화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뉴스 기사를 분석이 가능한 정제된 데이터로 바꾸어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뉴스 기사를 단순히 조회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며, 기사를 활용하여 사회의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박현수, 2016).

빅카인즈의 검색어 선택에서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협의 용어인 ‘외국인노동자’, 법무부 협의 용어 ‘외국인근로자’와 이 두 가지 용어를 포괄하는 개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전 검색을 하였다. 빅카인즈 검색 결과, 이주노동자가 뉴스 검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국제협약인 이주노동자관리협약에서도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을 이주노동자로 정의하여 검색하여 분석하였다.¹⁴⁾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기별의 키워드 변화

14) 빅카인즈 검색 결과: 외국인노동자(13,260건), 외국인근로자(103건), 이주노동자(20,750건)로 검색되었으므로 중복성을 고려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주노동자를 본 연구의 검색 용어로 활용하였다.

를 살펴보고자 3단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 구성원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1993년~2006년 산업연수생제도에서부터 고용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병행 시기를 포함한다. 두 번째, 2007년~2019년까지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되어 시행하고 있는 시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전의 시기이다. 세 번째, 세계적인 감염병이 확산되어 사회적 약자, 특히 이주민에 대한 차별, 혐오 등이 발생하기도 한 2020년~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 단계 분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제도적 접근과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따른 시기별 분류에서 이하 첫 번째는 1단계 병행 시기, 두 번째는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세 번째는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도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지난 20여 년간의 기사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화에 따른 차이를 시기별로 분석하기 위해, 빅카인즈를 활용하였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으며, 지역별 민간차원의 이주노동자지원기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이 위치해 있으므로 전국일간지와 함께 지역일간지도 검색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나 인사 관련 기사들은 제외하고 총 20,278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2. 연구방법

빅카인즈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즈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첫째, 1단계 병행시기와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그리고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가 얼마나 보도되었

는지 기사량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기사들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연관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글자 크기가 클수록 가중치가 큰 것을 의미하며, 가중치가 클수록 연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와 관계된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등의 개체 간 연결 관계를 분석하였다. 관계도 분석에서는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시하게 되는데, 인물은 노란색으로, 기관은 파란색으로, 장소는 초록색으로,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원이 클수록 가중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4.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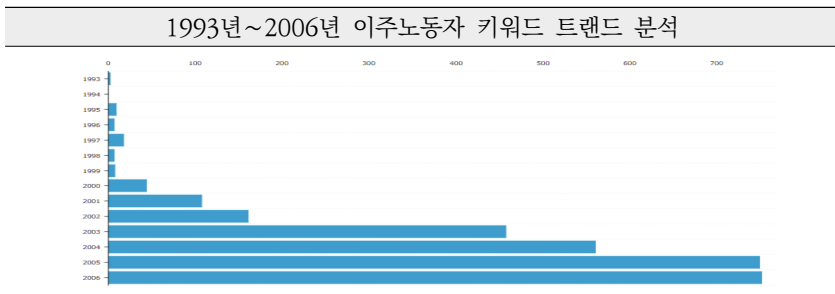
4.1. 키워드 트렌드 분석

온라인상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들의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건수는 1단계 병행 시기에서 이주노동자 용어 관련은 2,989건이 검색되었다.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는 13,807건으로 상승하였으며,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3,482건으로 1단계 기간 대비 많은 뉴스 프레임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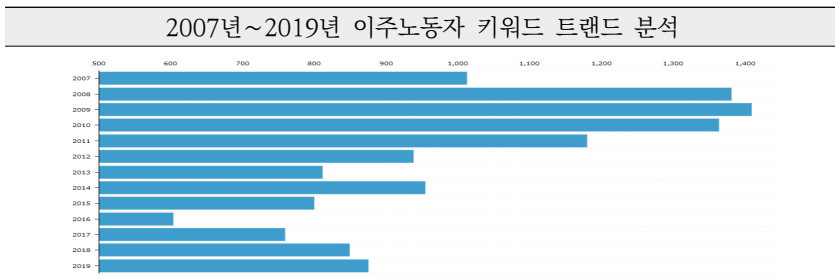
다음 <그림 1>은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사회가 이민송출국에서 이민유입국으로 변모한 시기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련 기사 건수가 0~2건 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병행 시기 뉴스 기사 건수를 보면, <그림 1>에서도 나타나듯이 2004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고용허가제도 도입과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의 경우 <그림 2>에서 2009년에 1,409건으로 가장 많은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부터 뉴스 기사 보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2012년까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첫 시행이 진행된 시기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관련 법 시행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적 기반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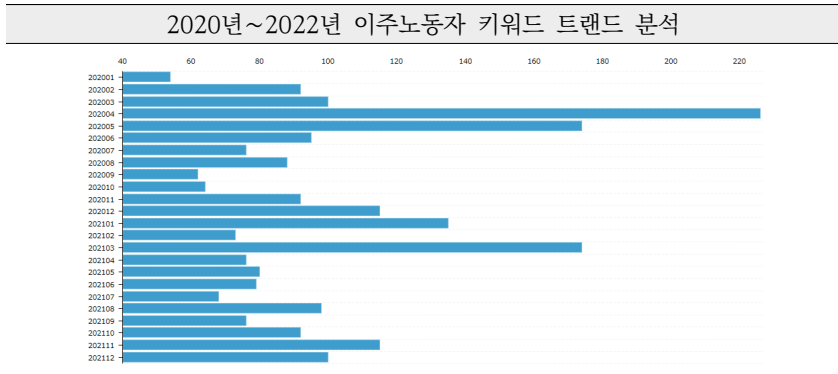
〈그림 1〉 1단계 병행 시기



〈그림 2〉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그림 3〉은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월별로 제시된 것이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서 조사되었듯이 한국사회는 인권 현황 조사결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구조적 차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한 뉴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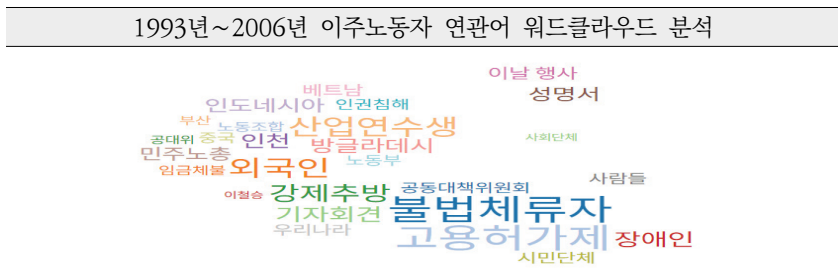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020년 4월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특정 국가 이주민에 대한 혐오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또한 <그림 3>에서 보여지듯이 2015년 이후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20년과 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 다시 온라인상의 뉴스 기사 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림 3>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4.1.1. 연관어 분석

보도된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에서 나타난 연관어를 분석하였다. 먼저 1단계 병행 시기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연관어를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 제시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1단계 병행 시기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 중 가중치의 크기순으로 연관어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¹⁵⁾(56.75%), 고용허가제도(46.63%), 외국인(43.5%), 산업연수생(40.4%), 강제추방(38.43%), 기자회견(32.72%), 장애인(31.98%), 방글라데시(30.59%) 등의 순이다.

먼저 가중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불법체류자’ 관련 내용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집회, 불법체류 중국동포 즉각 사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인권 보듬 등에 관련된 기사들이었다. 또한 불법체류자도 사람이며, 한국인들의 욕설과 폭력 등에 대한 혐오 및 차별에 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 이주노동자 단속중단 요구 집회,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 불법체류 단속, 산업현장 노동력 착취가 불법체류 양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다음 순으로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도’의 경우는 2004년 고용허가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용허가제도, 현대판 노예제도, 인권보장, 고용허가제도 실시 그 이후 등 초기 고용허가제도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외국인’은 외국인노동자 노조결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차별, 귀한 생명, 인권침해, 단속 추방 반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산업연수생’은 산업연수생제 즉각 폐지, 인권세미나, 산업현장 노동력 착취 불법체류자 되레 양산, 무차별 단속 통곡 등의 내용이 많았다. ‘강제추방’은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규탄 결의대회, 강제추방반대 항의농성, 출국거부운동, 부산서 이주노동자 폭행 등에 관한 것이었다. ‘기자회견’의 경우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규탄 결의대회, 2005년 방글라데시 출신 노조위원장 아노아르가 불법체류 혐의로 연행되어 강제추방에 따른 시위 등 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기사들이었다. ‘성명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대변할 시민단체 단속추방반대를 위한 안산지역 공식 출범에 관한 기사들과 유사한 내용이 주를

15) 불법체류자 용어에 대한 논쟁은 사람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뉴스 기사에서 추출되는 용어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불법이민에 대한 처우가 첩예한 정치적 이슈인 영미권 등지에서는 ‘미등록외국인’(Unregistered Foreigner)이나 ‘미서류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라고도 한다. 한국의 법무부 통계 용어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2021).

이루었다. 안산 원곡동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력적인 단속 추방과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과 관련한 기사가 많았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제추방 멈춤, 추락사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 차별 금지 등이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1단계 병행 시기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 등 권리에 대한 주장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주노동자 인권쟁취 집회 등의 기사들로 당시 시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단계 병행 시기의 뉴스 기사는 대부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편견, 혐오 등이 주 내용이었다. 반면 ‘이날행사’ 관련 기사는 이주노동자 한마당 잔치, 이주노동자 돕기 찾집, 송년축제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적응 돕기 등도 차지하였다. 이처럼 1단계 병행 시기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의 초기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주노동자의 측면에서도 권리 등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시기의 사회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5>는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연관어를 제시하고 있다. 가중치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연관도가 높은 순으로 주요 연관어를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도(90.52%), 기자회견(58.44%), 사업장(48.94%), 노동권(48.72%), 외국인(44.22%), 다문화가정(41%), 불법체류자(40.88%), 고용노동부(39.33%), 사업주(36.93%), 사람들(36.8%), 법무부(30.6%), 인권침해(26.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도’는 시민단체들의 고용허가제도 폐지, 이주노동자 한국선 일회용,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집회, 농촌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여성이주노동자 성희롱, 현대판 노예제 등에 관한 기사들이었다. 2차 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에도 1단계 병행 시기와 유사한 기사 내용이 중복되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혐오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기자회견’의 경우에도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고용허가제도 폐지,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막무가내식 단속 즉각중단, 불법인 사람은 없음 등 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업장’은 산재사고 대

책, 권리보장 촉구,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이주노동자 17명 사망, 국제앰네스티의 고용허가제도법 개정 권고, 이외에 이주노동자 폭행 및 폭언, 인권침해 등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사업장’, ‘노동권’, ‘외국인’은 이주노동자 실태 파악 촉구, 건설업 이주노동자 근로 개선,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시 사업장 변경, 인권순회상담 실시, 주거권 및 건강권 확보 간담회, 동정과 혐오 등에 대한 기사였다. ‘다문화가정’은 권익보호, 의료지원, 생활정착, 한글학교 등의 기사에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두 구성원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사회 등에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접근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자’, ‘고용노동부’, ‘사업주’, ‘인권침해’, ‘법무부’ 등과 같은 연관어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혐오 등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고려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2007년~2019년 이주노동자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분석



〈그림 5〉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그림 6〉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주노동자 관련 연관어 분석으로 코로나19가 가장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경우는 경산 공장 33명 집단감염,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염 확산세, 이주노동자 재난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 체류 기간 1년 연장,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강요는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 이주노동자 숙소 동사 등이 관련 내용이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는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대다수 거주, 비닐하우스 숙소화

1단계 병행 시기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10	방글라 데시	26.89	191	10	사람들	36.8	179	10	기자 회견	34.62	121
11	인도 네시아	26.71	174	11	법무부	30.6	215	11	주거 환경	28.11	137
12	성명서	24.96	60	12	인권 침해	26.89	192	12	사람들	26.99	189
13	인권 침해	23.28	157	13	국가 인권 위원회	26.06	95	13	캄보 디아	26.63	439
14	사람들	22.05	175	14	인권위	25.17	267	14	집단 감염	26.07	150
15	우리 나라	21.97	91	15	임금 체불	24.68	152	15	인권위	24.97	255
16	중국	21.67	222	16	대구	24.08	361	16	유학생	24.69	84
17	공동 대책 위원회	20.87	48	17	외국인 근로자	23.83	102	17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	24.67	67
18	네팔	20.6	162	18	베트남	21.68	160	18	국가 인권 위원회	23.19	73
19	노동부	19.89	176	19	네팔	19.37	260	19	광주	21.69	264
20	시민 단체	19.64	90	20	고용주	19.12	184	20	실태 조사	21.67	198
21	노동 조합	18.48	130	21	스리 랑카	18.93	143	21	사각 지대	20.44	185
22	이날 행사	17.86	47	22	부산	18.7	305	22	네팔	20.31	263
23	임금 체불	17.82	77	23	이날 행사	18.69	43	23	사업주	20.15	336
24	위원장	17.06	184	24	중국	15.45	149	24	E-	17.87	88
25	부산	16.08	265	25	노동절	14.55	73	25	혐오	17.14	264

1단계 병행 시기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26	이철승	15.12	63	26	구미	14.3	239	26	다문화 가정	14.34	30
27	노동계	14.82	38	27	노동 조건	13.08	62	27	고용주	14.05	183
28				28	실태 조사	12.63	172	28	베트남	13.75	173

4.1.2. 관계도 분석

이주노동자 관계도 분석에서는 제시된 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와 검색어인 이주노동자의 연계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다음 <그림 7> 1단계 병행 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장소에 해당되는 것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경기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용허가제도 국가간의 연계성을 보이며,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국가 관련 뉴스 기사가 대다수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체류외국인 비율과 관련한 황미혜(2017)의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과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들의 정체성을 활용하여 역할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에 국민됨을 전제로 유입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모국언어로 의사소통, 주로 이주노동자 상담 등 관련 통번역 관련 일에도 종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강제추방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인도네시아’는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사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와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키워드에 해당하는 노동자, 고용허가제도, 위원장, 사무국장, 사업주, 근로자, 노동허가제 등은 이주노동자의 태동에서부터 고용허가제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노조결성 등의 기사와 관계도를 보이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가칭 이민청 설립 및 4차 외국인정책 시행에서 고용허가제도를 통한 단기적인 노동력 공급에서 정주화 논의의 대상이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명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에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약 20여년간의 온라인상의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이주노동자의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형성의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세 단계 시기로 구분하였다. 1단계 시기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2006년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까지, 두 제도 병행 시기까지로 구분하였다.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는 병행되었던 두 가지 제도가 2007년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된 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하의 이주노동자 상황을 2020년부터 2022년 위드코로나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들의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관계도에 있어서 변화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1단계 병행 시기에 비해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에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노동자 관련 지원법의 2003년 제정 및 2004년 고용허가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관련 기사가 급증하였다.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쟁점 중 주로 부정적인 측면의 보도가 많았다. 특히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뉴스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상황하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관어 분석에서도 온라인상 뉴스의 기사는 다수의 이주노동자에게는 한국사회에서의 소외감, 부정적 태도 등에 놓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놓여 있는 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책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에 대한 온라인상의 뉴스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한국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무관한 다른 국가 구성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의 적응을 돕고 소통과 이해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나 환경조성 등에 대한 연관어들은 거의 없었다. 이날행사와 같은 연관어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된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의 연관어나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이나 혐오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키워드나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관계도 분석을 통해 국명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이 나타났는데, 이주노동자의 많은 수가 이들 나라에서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칭 이민청의 설립,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있어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 지원 전문가 육성 및 온라인상에서의 다문화사회이해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 거버넌스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뉴스 기사를 3단계로 분류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세부적인 내용 분석들에 기반한 분석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을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개괄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진구 외(2019).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네이버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0), 103-135쪽.
- 김동수 외(2007).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동아시아연구원> 32-36쪽.
- 김선남(2002). 매체출판 관련 TV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2), 41-76쪽.
- 김용환(2018). 혐오와 관용의 관점에서 이방인(난민) 바라보기, <2018 한국가톨릭철학회 가을학술대회자료집 한국가톨릭철학회>.
- 김철효(2019, 5월). <외국인 혐오와 이민정책>. 제 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서울: 국회의원회관.
- 노기호(202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의 위헌성 검토, <한양법학> 32(1), 3-30쪽.
- 박미화 외(2017). 온라인 뉴스 댓글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중국동포 혐오증: 오원춘 사건 보도 전후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3), 92-117쪽.
- 박승조 · 박승관(2016).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3), 145-177쪽.
- 박현수(2016). 빅카인즈(BIG KINDS) 활용과 전망. <한국조사기자협회> (28), 216-239쪽.
- 배영주(2020).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 구상: 대학생의 혐오표현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0(1), 31-65쪽.
- 양혜승(2022). 여성, 이주민, 노인 혐오성 댓글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네이버 범죄뉴스를 맥락으로, <한국방송학보> (36)3, 1-41쪽.
- 여성가족부(202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 오미애, 전진아(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셜 빅데이터 기반 주요 이슈 분석, <보건복지 Issue & Focus> (376), 1-12쪽.
- 육주원 외(2021). 한국인의 사회적 관용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연구학> 44(4), 1-18쪽.
- 윤인진(2019).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 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에 대한 신문기사 댓글 분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60(4), 7-38쪽.
- 이종관(2020).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5, 1-73쪽.
- 이인희 · 황경아(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6(2), 83-108쪽.
- 이희영(2016).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뉴스프레임의 유형, <한국언론학보> 60(4), 7-38쪽.
- 조민정(2019). 네트워크 사회의 개인권력과 디지털 노마드 개념에 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17(1), 41-71쪽.

- 조우연(2019). 중국동포의 이미지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2-64쪽.
- 중소기업중앙회(2019). 『외국인력(E-9) 활용 중소기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 질 들뢰즈, 김상환 옮김(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 최강화(2022).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Homo Migrans〉 (26), 65-91쪽.
- 한국행정연구원(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www.kipa.re.kr>.
- 한준성(2022).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자(E-9) 사업장 이동규제의 통치성과 위험심사의 역할, 〈문화와 정치〉 9(2), 5-36쪽.
- 허윤철 · 임영호(2016). 범죄뉴스 노출과 다문화 수용성: 위험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 92-123쪽.
- 허찬행 · 심영섭(2015). TV매체가 재현한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의 현실: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1), 325-363쪽.
- 홍성수(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1-27쪽.
- 황경아(2017). 미디어 담론을 통해 본 다문화의 역할-언론의 반다문화 정서에 대한 재현방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미혜(2017). 결혼여성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정체성 차이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 정책 방안 연구, 〈지역과 문화〉 4(1), 91-112쪽.
- Attali, J.(2003). 이효숙 역(2005). 효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주)웅진싱크빅.
- Birkland, T. A.(2005).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Theori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Policy Making (2nd ed.), New York: M.E. Sharp.
- Choi. D. S., Choi. S. E., & Choi. Y. J.(2008). How do comments affect forming public opinion in Internet portal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8, 311-358.
- Coombs, W. T.(2007). Protecting organization reputations during a crisi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Corporate Reputation Review 10(3), 163-76.
- Han, Junsung.(2020). K-EPS' Regulation Limiting the Workplace Changes: History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 MRTC Issue Brief NO.
- Hennebry, J. and H. KC(2020). Quarantined! Xenophobia and migrant work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OM(UN MIGRATION).
- Lee. J. I.(2015). The speech code debate on regulation and freedom of

- hate speech,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22(4), 1-18.
- Kim. S. A.(2015).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in korea, *Issues in Feminism* 15(2), 279-317.
- Kim. S. A.(2017). On the online community and the potentiality of conversation about feminism. *Media, Gender & Culture* 32(3). 5-45.
- Levmore. S., & Nussbaum. M.(2010). *The offensive internet: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translated by Kim. S. H. (2012). Uiwang: Acorn.
- Tuchman, G.(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국가인권위원회(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19).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 국제앰네스티(2022).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2023년 4월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 (검색일 2023. 05. 20).
-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검색일 2023. 05. 11).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검색일 2023. 01. 30).
- 경기뉴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529580278>(검색일 2023. 02. 30).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E%98%EA%B8%B0%EB%8B%A4>(검색일 2023. 03. 10).
- 주간조선, 다문화사회가 키우는 외국인혐오증 ‘불편한 진실’의 현장 <http://weekly.chosun.com>(검색일 2023. 05. 10).

필자 소개

성 명 조숙정
소 속 동아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전자우편 susuhao@naver.com

성 명 황미혜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길 65
전자우편 mhh1361@bufs.ac.kr

Abstract

Analysis of Migrant Workers News Frames Online According to the Digital Nomad Age

Jo, suk-jeong · Hwang, mi-hye

(Dong-A University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nalyzed news article frames reported online according to the digital nomad age. Through this, social issues related to migrant workers were identified by period. In the future, to present basic directions for future systems and programs migrant workers. A total of 20,278 news articles related to migrant work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1993 to 2022 using Bigkinds. Keyword trends, related words, and relationships diagram were analyzed for news articles related to migrant worker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various related problems were mainly reported in the media. In particular, the 3rd stage COVID-19 pandemic period is a short period. However, despite the three-year period, the number of news stories online was hig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issues of migrant workers in our society at a macro level through big data on migrant workers and presents policy directions.

[Key words] Digital nomad age, migrant workers, online news frames, industrial training system, employment permit system, COVID-19 pandemic, hatred

투고일 2023. 06. 15 / 심사일 2023. 07. 13 / 게재확정일 2023. 07. 18